

 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	2021. 9. 28.(화)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농업기술원	보 도 자 료 PRESS RELEASE	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	고봉철 ☎ 760-7901
		업무담당자	이성돈 ☎ 760-7942
		홍보담당자	고희열 ☎ 760-7581
동영상 : 있음 ☐ 없음 ☒		사진 : 있음 ☒ 없음 ☐	
		후속자료 : 없음	

태양광 활용 전기 생산 · 농작물 재배 ‘일거양득’

- 서부농기술센터, 올해 영농형 태양광 월동채소 재배 모델 2년차 실증 -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(소장 고봉철)는 마늘 · 양파 · 양배추 등 3개 작목에 대해 ‘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’ 2년차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-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‘영농형 태양광* 재배모델 실증 지원사업’의 하나로, 지역에 맞는 적정품목 발굴 및 품질 하락 최소화를 위한 표준 재배모델 구축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.
 - * 영농형 태양광: 농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전기 생산과 농작물 재배를 병행
- 지난해 서부농업기술센터 · 3작목(마늘, 양파, 양배추)이 공모사업 대상에 선정됐다.(2020년 전국 5센터 · 13작목 선정)
 -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1억 5,000만 원을 투입해 실증시험포장에 750㎡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시설(용량 40kw, 차광률 30% 이내, 높이 4.5)을 설치했다.
- 서부농업기술센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이용해 재배되는 작물의 감수율, 증금속 등 토양환경 변화, 재배환경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방안 등을 실증하게 된다.

- 지난해 1년차 실증에서는 땅속에서 자라는 마늘·양파 등은 영농형 태양광 시설의 일조 부족으로 수확량이 감소했으나, 지상에서 재배되는 양배추는 수확량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됐다.
- 올해 2년차 실증을 위해 현재 마늘·양배추 파종(정식)을 완료했으며, 10월 중순경 조생양파도 정식할 예정이다.
 - 작목별 생육상황, 품질 및 생산량 등을 실증내용으로 한다.
 - 특히, 영농형 태양광 표준시스템 및 작물별 표준재배기술의 개발 연구를 비롯해 △구조물 비용 및 시공비 절감 △장기간 내구성 확보 △부분침하 및 중금속 오염문제 해결 방법 등을 검토한다.
 - 실증이 완료되면 내년 6월에는 품질 조사, 전기생산량 및 경영성 분석 등 현장평가회를 거쳐 적정품목 및 표준 재배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.
- 아울러 2023년 이후에는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활용한 작목 확대 및 작목별 후속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.
- 이성돈 농촌지도사는 “영농형 태양광 시스템과 작물별 재배 기술 개발을 통해 전기 생산과 농작물 재배를 병행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